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하성규** · 마강래*** · 안아림****

A Study on the Residential Segregation Patterns of Foreign Population in Seoul*

Seong-Kyu Ha** · Kang-Rae Ma*** · Ah-Rim Ahn****

요약 : 우리나라는 과거 10년간 급속한 외국인 인구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인구증가 추세와 맞물려, 분리된(segregated) 형태로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지역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분리'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외국인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먼저, 국적별 · 체류자격별 특성에 따라 외국인들이 어떠한 지역적 분포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인 주거지가 국적별로 어느 정도의 분리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해 비유사성지수(dissimilarity index)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지역적 특성과 연계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내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는 국적별로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적과 체류자격에는 매우 긴밀한 상관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의 공간적 분리양상도 국적별로 매우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주제어 : 외국인, 소수집단, 주거지 분리, 비유사성 지수, 군집분석

ABSTRACT : There has been a rapid increase in the foreign population in Korea over the last ten years and the trend in the residential segregation of foreign population is more conspicuous than ever. Despite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residential segregation, too little attention is given to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foreign population in the previous literatu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egregation patterns of migrants from a spatial perspective. Using the statistical year book of Seoul, this study examines the distributional patterns of migrants by nationalities and purpose of stay (status of residence). In addition, the degree of residential segregation is investigated using the index of dissimilarity which has very frequently been used as a measure of inequ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patterns of residential distribution vary considerably according to the nationalities and purpose of stay. Moreover, the degree of residential segregation also shows a great deal of variation according to different nationalities.

Key Words : foreign population, minority group, residential segregation, dissimilarity index, cluster analysis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지정주제지원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NRF-2010-328-20100869).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Chung-Ang University)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Chung-Ang University),
교신저자(E-mail: kma@cau.ac.kr, Tel: 031-670-4832)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Master's Course Student,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Chung-Ang University)

I. 서론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의 외국인 유입 관련 정책은 국내 유입 외국인의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우리나라의 등록 외국인인구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3년 76,374명에서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2007년에는 765,429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0년 현재, 91일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인구는 2010년 6월 현재 총 876,401명으로 전체 인구의 1.9%에 달하고 있다(법무부, 2010).

외국인 인구 증가 추세와 맞물려, 분리된(segregated) 형태로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밀집 지역들이 과거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거주지 분리의 원인에 대해 과거문헌들은 다음의 두 가지를 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룹 내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에 공간적 집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의 사회적 자본은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정보, 노하우 등을 습득하는 데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분리의 원인은 직장이나 학업의 기회가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된 고용이나 교육의 기회가 주거지의 분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영세 제조업체가 집적한 지역 혹은 대학 부근에 외국인 밀집지역이 종종 눈에 띄는 것과 그리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는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내부적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구성원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장기적으로 주류사회의 편입

을 돕는 긍정적 기능을 하는 동시에, 주류 집단과의 갈등을 야기하여 이주한 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 역할도 하고 있다. 외국인의 공간적 분리는 사회적 측면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외국인의 밀집이 특정 노동시장(예, 저숙련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기회를 제고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특성을 지닌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기회를 저해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경험을 먼저 겪은 다수의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주거지의 분리패턴이 갖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에 대한 연구가 과거 수십 년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외국 이주민의 공간적 분포패턴에 대한 연구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고, 내·외국인간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반해, 과거 10년간 급격한 외국인 수의 증가를 경험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인의 주거지 분리패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분리'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외국인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요 국적별 외국인들의 공간적 분리양상에 대한 차이점 및 유사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국적별 분리도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별로 세분화하여 측정하여 구(區)단위의 외국인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외국인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대한 서구 사회에서의 주요 논점들과 선행연구들을 정리한다. 실증분석을 수행한 3장에

서는 외국인의 국적별·체류자격별 특성에 따라 서울시 내에서 어떠한 지역적 분포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인 주거지가 국적별로 어느 정도의 분리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해 비유사성지수(dissimilarity index)를 통해 알아본 후, 이를 외국인 분포에 관한 지역적 특성과 연계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주거지 분리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II. 주거지 분리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1. 주거지 분리의 이론적 논의

주거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는 특정한 소수 민족이나 인종의 거주패턴이 공간적으로 집중 및 분리되어 나타나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정집단의 공간적 분리현상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러한 분리가 경제·사회·문화적 분리와 긴밀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소수 집단의 주거지 분리현상은 이민자들의 이주가 일찍부터 시작된 미국과 유럽 내의 서구 선진국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주거지 분리의 원인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유럽 사례의 경우는 큰 차이를 갖고 있다.

Zorlu and Mulder(2010)는 미국을 사례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소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선호(preferences)와 주류 집단으로부터의 차별(discrimination)이 주거지 분리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가장 흔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유럽 도시를 사례로 한 연구들에서는 미국에서처럼 소수 그룹이 받는 차별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며, 인종 간 문화적 차이와 지역의 주

택시장 상황과 맞물린 이민자들의 열악한 경제상황이 주거지 분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로 다른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 보이고 있는 주거지 분리 요인의 상이성은 지역별 상황과 이민자들의 구성에 따라 공간적 분리의 원인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문헌의 대부분은 외국인의 주거지 분리현상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분리의 부정적인 효과를 부각하는 입장에서는 주거지의 분리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들이 도시나 지역사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수 집단(minority group)의 주거지 분리가 심화될수록 주류 집단(majority group)과의 접촉기회가 줄어들게 되고(Fortuijn et al., 1998), 이는 소수집단이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단 간의 사회적 반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적 분리의 정도가 높은 소수 집단일수록 사회적 동화(assimilation)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공간적 분리가 잠재적 갈등의 여지를 갖게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주거지 분리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다(Zorlu and Mulder, 2010; 정수열, 2008; Galster, 1990). 첫째, 동화론(spatial assimilation framework)으로서 소수민족 집단이 소득과 교육수준 등의 구조적 측면과 이주국 언어 습득정도 및 체류기간 등의 문화적 동화 측면에서 주류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 분리가 나타난다고 본다(Massey, 1985; Gordon, 1964; Portes, 1995). 둘째, 민족성론(resurgent ethnicity framework)으로 동일 민족 사람들 간의 친밀성이 주거지 분리의 핵심 원인이라 밝히고 있다(Allen and Turner, 1996). 셋

제, 인종적 편견을 활용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이윤추구 및 주거지 분리를 조장하는 것들, 예로 부동산중개사 혹은 주택금융업자들의 배타적·차별적 관행이 주거분리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다(Galster, 1990).

주거지 분리가 자발적(voluntary)인가 비자발적(involuntary)인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주로 소득, 취향(선호), 주택 관련 정보의 영향, 특정 집단 혹은 인종(ethnic)에 대한 편견과 차별, 종교 등의 영향인가를 규명해야 한다.

주거지 분리를 층화론(place stratification framework)적으로 설명하는 연구에서는 이민자들 특히 특정 인종 혹은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발생된다는 점이다(Logan and Molotch, 1987). 그 대표적인 예로서 '조정'(steering), '지역지위 강등'(blockbusting), '특정경계지역 지정'(redlining) 등의 차별적, 배타적 행위와 관행에 의해 주거지 분리가 나타난다. 이민자나 소수민족집단은 특정의 장소 혹은 커뮤니티에 국한하여 그들을 거주하게 만드는 외적 요인을 들 수 있다. 특히 미국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소수민족집단이나 이민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혹은 자격심사 등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Galster, 1990). 유사한 사례로 부동산중개인이 백인 동네에 흑인 혹은 유색인종 소수민족집단의 사람들이 이사 올 것이라는 소문을 퍼트려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거나 주택을 헐값에 팔도록 하는, 위에서 언급한 '지역지위 강등'이 나타난다. 인종적 편견을 이용하여 정상적 주택거래를 왜곡시키거나 특정 인종집단의 주거를 제한 혹은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주택모기지(housing mortgage) 조건은 개인의 소득과 직업 및

신용 등에 기초하기보다는 특정 지역 혹은 지역사회의 성격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특정 경계지역 지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편견적 일탈행위는 인종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상이한 집단들의 사회적 혼합거주를 방해하게 된다.

주거지의 분리현상이 부정적 기능뿐만 아니라 긍정적 기제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논증하는 연구결과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소수민족의 주거지 분리현상은 사회적 소수자가 생존하는 방식으로서 고립된 자신들의 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주류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Krivo, 1995). 주거지의 분리는 고용기회의 제공 측면에서 소수민족에게 이점이 있으며(Bayer et al., 2006),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소수민족의 주거지 분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 역할과 긍정적 역할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주거지 분리가 가지는 효과를 부정과 긍정의 상충(trade-off)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점(박원환, 2010)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 주거지 분리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다민족 국가로서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에서는 해외 이주민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주거지 분리현상에 대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분야에서의 국내문헌은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데, 외국인 수의 급증을 최근에서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외국인 주거분포에 대한 연구는 이들 인구가 약 20만명을 넘은 2000년을 기점으로 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

이다. 외국인 주거분포에 대한 지금까지의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시 내 외국인의 공간분포를 실증한 강경조(2002)는 국적별 특화지수와 비유사성 지수를 통해 주거지 분리패턴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구 단위의 외국인 인구통계를 이용해 서울시 전체 주거지의 분리 현황을 살폈다는 점에서, 보다 작은 공간적 단위에 발생하는 주거분리를 관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를 사용한 박세훈·정소양(2010)의 최근 연구는 우리나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외국인의 국적별·체류자격별 공간적 분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인 주거입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 또한, 시군구의 분석단위에 한정되어 거시적 거주지 패턴의 양상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읍면동의 보다 세분화된 공간단위를 사용하여 수도권 지역 외국인들의 주거지 분리현상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근 연구는 박윤환(2010)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거지 분리정도를 살펴봄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주거지 분리가 심한 지역이 일치하진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국적이나 체류자격별로 외국인을 분류하지 않고, 거주 외국인 전체의 공간적 분리패턴을 살펴보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체류의 내용이나 인종별로 서로 다른 공간적 분리패턴을 가진다면 서로 다른 공간적 패턴을 종합한 전체 외국인의 주거지 분리는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유형별 분리패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간분포 패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이주 목적에 따른 공간적 분리에 대한 초보적 이해를 돕는 외국인 관련 문헌들도 몇몇 존재한다. 신인철(2007)의 연구에서는 근로목적의 이주자 주거지는 일자리 근처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소수민족의 집단 주거지(ethnic enclave)의 초기 형태, 즉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의 집단화 형태를 띠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박세훈·정소양(2010)의 연구에서는 결혼 목적의 이주의 경우, 수도권 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권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이민 목적에 비해 군 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III.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실증분석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외국인 수의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주거지가 국적과 체류자격별로 어떠한 공간적 입지패턴을 갖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외국인 입지패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적별, 체류자격별로 분포패턴이 유사한 서울시의 구(區)들을 묶는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어떠한 외국인들이 국적별로 혹은 체류목적별로 특정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현황의 파악을 통해 국적과 체류목적과의 개략적 상관성과 입지분포의 특성을 가늠하였다. 이러한 현황 파악 이후, 국적별 외국인의 주거지 분리패턴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함으

로써 분리패턴의 국적별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09년 통계연보와 서울시의 통계연보를 사용하였다. 법무부의 통계연보는 외국인의 국적별, 체류자격별 수를 시군구 단위로 제공하고 있어 서울시 구 단위의 군집분석을 실시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서울시 통계연보는 각 자치구의 동별 외국인 주요국적 자료를 이용하여 비유사성지수를 산출하는 데 이용하였다. 2009년 서울시 통계연보에서는 25개 자치구별로 20개가 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적별 분포패턴에 대한 비교분석의 편의를 위해 2009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내 이민자 수가 많은 상위 6개의 국적(한국계 중국, 중국, 미국, 타이완, 일본, 베트남)을 선정하여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 내 한국계 중국인은 166,41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계 25,778명, 미국 13,103명, 타이완 8,819명, 일본 6,806명, 베트남 5,162명으로 나타났다.¹⁾ 또한 서울시 통계연보에서는 20종류가 넘는 다양한 체류자격별 외국인 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또한 분석의 편의를 위해 체류자격을 유학생, 전문인력, 단순 비전문인력, 결혼이민자, 기타의 다섯 종류로 나누어²⁾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먼저, 서울시의 각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구별로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국적별, 체류목적별로 수행된 군집분석의 주요 목적은 외국인 분포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시 25개 구(區)내 총외국인 수를 국적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수로 나누어 외국인간 상대적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사용된 방법은 중심연결법(centroid method)으로서 이는 군집들 간의 중심거리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 즉 서로 다른 국적별·체류자격별 패턴이 주거지 분리와 관련을 갖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비유사성지수(dissimilarity index)를 사용하였다. 물론 공간적 분포의 상이성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비유사성지수를 포함하여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s)³⁾, 엔트로피 지수(Entropy index)⁴⁾, 상호작용 혹은 노출지수(interaction or exposure indexes)뿐만 아니라 앳킨슨 측정방법(Atkinson measure), 분할표 방법(contingency table measure),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⁵⁾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비유사성지수는 Duncan and Duncan (1955)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지금까지도 특정 집

1) 동단위의 외국인 수를 이용하여 구단위의 비유사성지수를 구하기에 외국인 수를 기준으로 국적을 선정하였다. 선정에는 2009년 현재 외국인 수가 5,000인을 초과하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은 서울시 내 고용상황, 외국인 이주패턴 등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 이는 박세훈·정소양(2010)의 분류를 참조한 것이다. 먼저 유학생의 경우 문화예술, 유학, 일반연수, 국어연수, 기타연수 등이 포함; 둘째로, 전문인력은 취재, 주제, 기업투자, 무역경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홍행, 예술연예, 호텔유흥, 운동, 특정활동; 셋째로, 노동자(단순 비전문인력)는 산업연수, 해외투자, 중기협, 수산업, 각 부처, 건설협, 농협, 내향선원, 어선원,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내향선원, 취업관리, 방문취업; 넷째로,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와 국민배우자, 다섯째로, 기타는 일연아동, 종교, 방문동거, 동포연장, 동포변경, 거주, 난민, 영배우자, 고액투자, 기타장기, 동반, 영주,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지니계수를 활용한 지표는 균등한 분배를 가정할 때의 직선과 로렌즈 곡선의 차이에 따라 그 값을 달리한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한 배분을 의미한다.

4) 엔트로피는 물리학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불확실성 및 불균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값이다. 이 값은 작을수록 불균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5) 특정인구의 공간적 분리 정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White(1986)에서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단 주거패턴의 공간적 균일성(evenness)을 측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남아 있다⁶⁾(박윤환, 2010).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리 지표들 간에 매우 높은 상관성이 존재함을 감안⁷⁾하여, 분리정도의 측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유사성 지수를 선택하였다.

이 지표를 사용함에 있어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비유사성지수가 분리의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지표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모두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공간적 분리는 5가지의 다양한 관점⁸⁾에서 측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특정집단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균등성(evenness), 다른 집단과의 접촉용이성에 관한 지표인 노출성(exposure), 상대적 공간 점유비율을 나타내는 집중성(concentration), 유사한 집단이 어느 정도 모여 있는지에 대한 군집성(clustering) 등을 포함하고 있다. 비유사성 지수는 분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 균등성의 관점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지표인데, 특정한 집단이 비교집단(reference group)의 분포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이 지수는 '해당 구의 총외국인 수에 각 동(洞)의 외국인 수를 나눈 값($=x_j/X$)'에서 '해당 구의 총내국인 수에 각 동 내국인 수를 나눈 값($=y_j/Y$)'의 차(差)를 모두 합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 = 1/2 \left(\sum_{j=1}^J \left| \frac{x_j}{X} - \frac{y_j}{Y} \right| \right)$$

여기서 X 는 서울시 해당 구의 총외국인 수, x_j 는 j 동의 외국인 수, Y 는 서울시 해당 구의 내국인 수, y_j 는 j 동의 내국인 수를 의미한다. 이 지수는 주거지 분포패턴이 균등한 상태가 되기 위하여 한 집단이 이주해야 하는 비율(최은영, 2003)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계산된 비유사성지수가 0.5라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외국인 비율이 50%임을 의미한다. 계산된 D 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공간적 분리정도가 높으면 1에 가깝고 분리정도가 낮으면 0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난다.⁹⁾

3. 분석결과

1) 외국인 국적별 · 체류자격별 분포현황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별 · 체류자격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한 군집분석은 각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유형이 지역 간에 어떻게 유사하고 상이한지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는다. 국적별 군집을 6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먼저, 서울의 서남권 5개 구들이 묶인 첫 번째 군집(군집 1)에서는 한국계 중국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번째 군집과 세 번째 군집(군집 2와 군집 3)은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군집(군집 4)인 서초구 · 강

6) Duncan and Duncan(1955)이 개발한 비유사성 지수는 다양한 공간분포의 차이(즉 군집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간적(aspatial)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군집성의 차이는 공간분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GIS의 도움으로 많은 부분이 극복될 수 있다.

7) 서로 다른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White(1986)를 참조하였다.

8) 본문에 기술되어 있는 5가지 양상의 측정에 대해서는 Massey and Denton(1988)을 참고하였다.

9) 비유사성지수를 통해 분리의 정도를 명확히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대체로 0.6보다 크면 높은 수준의 분리가 있다고 보며, 0.3보다 낮으면 분리수준이 낮다고 판단한다(박윤환, 2010).

〈표 1〉 국적별 군집 형성

군집	서울시 25개 구	특징
1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 전체 외국인 중 한국계 중국인 비율이 80~90% 정도로 국적의 대부분을 차지함. - 대부분의 구가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곳임(25개 자치구 중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는 외국인 수 기준으로 1~4위).
2	성동구, 강북구, 중랑구, 강동구, 양천구, 송파구, 광진구, 강서구	- 전체 외국인 중 한국계 중국인의 비율이 60~70% 정도를 차지함. - 중국인의 비율이 10% 내외를 차지함.
3	종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성북구, 마포구, 중구	- 전체 외국인 중 한국계 중국인의 비율이 40~50% 정도를 차지함. - 중국인의 상대적 비율이 높음(20% 내외).
4	서초구, 강남구	- 전체 외국인 중 한국계 중국인의 비율이 30~35% 정도를 차지함. - 미국인의 상대적 비율이 매우 높음(26% 내외).
5	용산구	- 일본인의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 가장 높음(12%). - 미국인의 비율이 서초, 강남 다음으로 높음(약 14%).
6	서대문구	- 다른 구에 비해 대만인의 비율(26%)이 압도적으로 높고, 미국인(9%), 일본인(5%)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주: 군집에 사용한 방법은 중심연결법(centroid method)으로 군집 간의 중심거리를 기준으로 최단 거리를 갖는 속성들을 우선하여 군집화함.

남구의 경우에는 미국인의 상대적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다섯 번째 군집(군집 5)에서는 일본인의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 가장 높았고 미국인의 비율 또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군집(군집 6)에서는 대만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미국인과 일본인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적이었다.

체류자격별 군집을 6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첫 번째 군집(군집 1)으로 묶인 서울 서남부의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는 단순 비전문인력의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세 개 구에 서울시 외국인의 32%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목적의 체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동작구, 관악구를 포함한 두 번째 군집(군집 2)은 단순 비전문인력의 비율과 결혼이주

민의 체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를 포함한 세 번째 군집(군집 3)은 전문직의 비중이 다른 구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군집(군집 4)은 전문직과 유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섯 번째 군집(군집 5)은 유학의 비율이 높게 분석되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군집(군집 6)은 유학의 비율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고 단순 비전문인력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의 두 군집분석을 통해 외국인의 국적과 체류자격은 어느 정도 상관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국계 중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서울 서남부지역의 경우 외국인 단순 비전문인력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표 2〉의 체류자격별 군집에서 1군집으로 묶인 구들의 경우(즉 노동 목적의 체류

〈표 2〉 체류자격별 군집 형성

군집	지역	특징	국적별 군집과의 일치도
1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 단순 비전문인력의 비율이 80% 정도로 체류자격의 대부분을 차지함. - 서울의 서남권지역 3개구 - 서울에서 외국인이 가장 집중된 곳임(25개 자치구 중,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는 외국인 수 기준으로 1~3위).	1군집에 모두 포함
2	동작구, 관악구, 양천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은평구	- 단순 비전문인력의 비율이 40~70% 정도로 높게 나타남. - 결혼의 비율이 10~30% 정도로 다른 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2, 3군집에 모두 포함
3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 전문직의 비중이 20~30%로 다른 구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4, 5군집과 일치
4	중구, 마포구	- 전문직과 유학생의 비중이 다른 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군집에 모두 포함
5	동대문구, 성북구, 종로구, 노원구	- 유학의 비율이 20~35%로 다른 구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6	서대문구	- 유학의 비율이 29%로 매우 높은 편임. - 단순 비전문인력의 비율이 18%로 서울시 구 중 가장 낮음.	6군집과 일치

주: 군집에 사용한 방법은 중심연결법(Centroid method)으로 군집간의 중심거리를 기준으로 최단 거리를 갖는 속성들을 우선하여 군집화함.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들의 경우), 〈표 1〉에서 한국계 중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1군집에 모두 속해 있다. 또한 체류자격 2군집의 대부분이 국적별 2군집 및 3군집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직의 비중이 매우 높은 3군집(서초, 강남, 용산구)의 경우에는 미국인과 일본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적별 분석의 4군집 및 5군집과 짝지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과 기타 이주목적이 높게 나타난 6군집의 서대문구 경우에는 대만인과 일본인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 국적별 분석의 6군집과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외국인 주거지의 분리패턴에 관한 실증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비유사성지수는 주거지 분리를 측정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어온 지표이다.

균등한 분포패턴과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이 지표의 수치가 높으면(즉 1에 가까워질수록) 특정 지역에 외국인이 편중되어 있음을 뜻한다. 본 절에서는 외국인주거지의 분리가 여섯 개의 국적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공간적 단위는 서울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위해 서울시 424개의 동을 이용하여 분리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가장 많은 동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송파구로서 26개의 동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금천구는 가장 적은 10개 동을 포함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개별 구당 17개의 동을 이용하여 각 구의 분리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본 국적별 분리정도는 대부분 0.4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

다.¹⁰⁾ 구체적으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크고, 베트남의 경우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¹¹⁾ 한국계 중국인의 상대적 분포(즉 모든 한국계 중국인 중 해당 동의 한국계 중국인 비율)가 내국인의 상대적 분포(즉 모든 내국인 중 해당 동의 내국인 비율)보다 매우 높은 상위 5개 동은 대림2동, 가리봉동, 신길1동, 가산동, 구로1동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경우 상위 5개 동은 화양동, 신촌동, 이문1동, 명륜3동, 안암동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인의 경우는 한남동, 연희동, 신사2동, 이촌1동, 이태원1동으로, 대만인의 경우는 연희동, 연남동, 회현동, 홍은2동, 남가좌2동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인의 경우는 이촌1동, 신촌동, 한강로동, 갈현2동, 역삼1동으로, 베트남인의 경우는 독산1동, 성수1동, 가산동, 서원동, 화양동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시 내 외국인의 국적별 공간적 분리 정도를 구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계 중국인의 분리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구로구(0.564)로서, 많은 수가 구로구의 15개동 중 가리봉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4동, 구로5동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인과 미국인의 경우, 서대문구의 분리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인은 서대문구 내 신촌동에 구내 전체 중국인의 56%, 미국인은 31%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미국인의 경우에는 신촌동뿐만 아니라 연희동에 50%가 거주하고 있다. 미국인의 경우 80% 이상이 신촌동과 연희동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로 서대문구의 분리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만인의 경우에는 중구 내 회현동에 구내 전체 대만인의 42%가 모여 있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높은 분리 정

도를 보였다. 또한 서대문구 연희동에 구내 대만인의 55%가 집중¹²⁾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대만인들이 서대문구 홍제1동, 홍은2동, 남가좌2동에도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중구보다는 낮은 분리정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인의 경우에는 용산구 이촌1동에 구내 일본인의 72%가 집중되어 있고, 서대문구에서도 구내 일본인의 64%가 신촌동에 집중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외국인의 공간적 분리 양상은 서울시 내에서 국적별로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그림 1> ~ <그림 6> 참조), 동일한 구 내에서의 분리양상도 매우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셋째, 서울시 내 외국인의 구별 분포도 매우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공간적 분리의 정도가 가장 높은 구는 서대문구로서 중국인, 미국인, 대만인, 일본인의 분리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대문구의 14개 동 중 신촌동에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중국인(구내 전체 중국인의 56%), 미국인(31%), 일본인(64%)의 밀집이 강하게 나타났다. 신촌동의 외국인 집중은 대학 주변의 유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만인의 경우에는 연희동에 매우 강한 집중(구내 전체 대만인의 55%)을 보였다.

외국인 주거지 분리의 정도가 두 번째로 높은 중구의 경우도 국적에 따른 분리의 패턴이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신당1동에서 가장 큰 집중을 보였으며, 중국인의 경우 필동에서, 대만인의 경우 회현동에서, 일본인의 경우 소공동에 밀집해 있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간적 분리의 정도가 가장 낮은 구는 서초

10)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한 비유사성지수는 424개의 동을 대상으로 계산되었다.

11) 대체로 외국인의 규모가 크면 비유사성지수가 낮고, 소수일수록 특정지역 편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서울시의 국적별 외국인 분리정도는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12)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華僑)의 대부분이 화교계 중고등학교가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과 마포구 연남동에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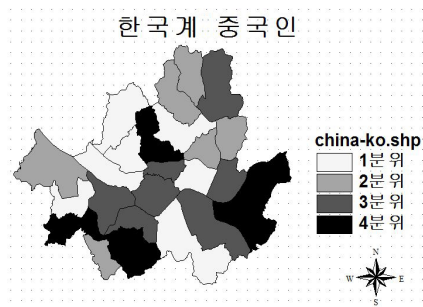
〈표 3〉 서울시 외국인의 국적별·구별 공간적 비유사성의 정도

구분	한국계 중국	중국	미국	대만	일본	베트남	구 DI 평균	구 순위
서울시 전체	0.540	0.531	0.500	0.522	0.490	0.420		
서대문구	0.300	0.615	0.680	0.519	0.628	0.350	0.515	1
중구	0.475	0.559	0.412	0.575	0.543	0.435	0.500	2
관악구	0.515	0.484	0.498	0.403	0.446	0.523	0.478	3
용산구	0.422	0.410	0.487	0.258	0.738	0.542	0.476	4
강남구	0.445	0.530	0.487	0.393	0.439	0.427	0.453	5
종로구	0.494	0.580	0.439	0.261	0.479	0.410	0.444	6
광진구	0.455	0.608	0.330	0.278	0.426	0.478	0.429	7
강동구	0.481	0.508	0.398	-	0.314	0.444	0.429	9
동작구	0.473	0.545	0.395	0.334	0.325	0.500	0.429	8
금천구	0.396	0.376	-	-	-	0.503	0.425	10
노원구	0.474	0.586	0.380	0.246	0.266	0.505	0.410	11
강서구	0.368	0.433	0.486	0.266	0.326	0.457	0.390	12
송파구	0.482	0.339	0.365	0.394	0.404	0.349	0.389	13
도봉구	0.376	0.351	0.366	-	-	0.441	0.383	14
성북구	0.280	0.493	0.449	0.319	0.417	0.331	0.381	15
구로구	0.564	0.445	0.356	0.243	0.231	0.364	0.367	16
영등포구	0.475	0.377	0.442	0.299	0.324	0.251	0.361	17
중랑구	0.384	0.342	-	-	0.369	0.333	0.357	18
성동구	0.289	0.442	0.355	0.232	0.354	0.399	0.345	19
은평구	0.252	0.393	0.297	0.327	0.456	0.286	0.335	20
마포구	0.226	0.389	0.277	0.448	0.305	0.293	0.323	21
강북구	0.343	0.304	0.272	0.296	-	0.327	0.308	22
동대문구	0.346	0.426	0.218	0.252	0.289	0.303	0.306	23
양천구	0.338	0.223	0.423	0.259	0.271	0.233	0.291	24
서초구	0.233	0.183	0.188	0.295	0.218	-	0.223	25
국적별 DI	0.551	0.544	0.511	0.531	0.502	0.429		
4분위(분리 정도 최대)	0.564	0.615	0.680	0.575	0.738	0.542		
3분위	0.475	0.530	0.445	0.393	0.445	0.462		
2분위	0.396	0.433	0.395	0.296	0.362	0.405		
1분위(분리 정도 최소)	0.338	0.376	0.343	0.259	0.307	0.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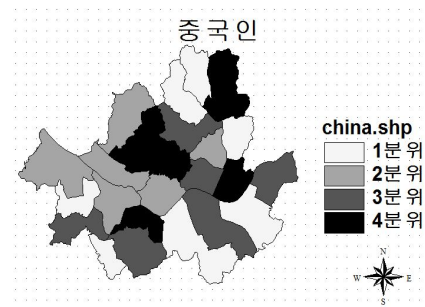
주 1: 서울시의 각 구는 공간적 분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정리함(공간적 분리의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6개 국적의 평균값을 사용): 거주자 수가 100인 이하인 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주 2: 국적별로 분리지표가 3분위보다 높은 경우는 굵은 숫자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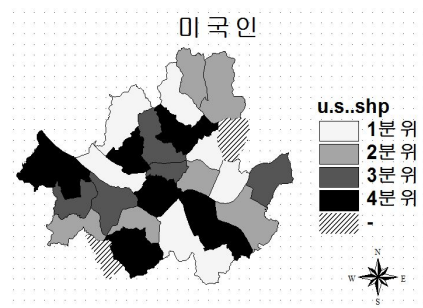
주 3: 분리지수의 계산에 있어 행정동 수의 차이는 지역단위의 가변성문제(Modifiable Area Unit Problem: MAUP)가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세부행정단위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분리지수를 비교하는 것(예를 들어 중국인의 서울시와 특정 동 분리지수의 비교)은 주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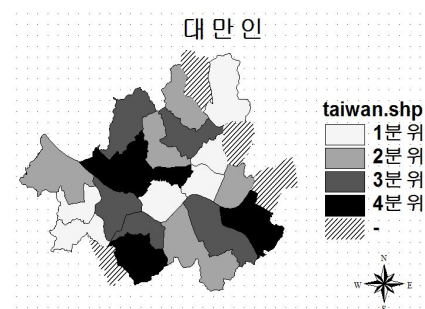
〈그림 1〉 한국계 중국인의 분리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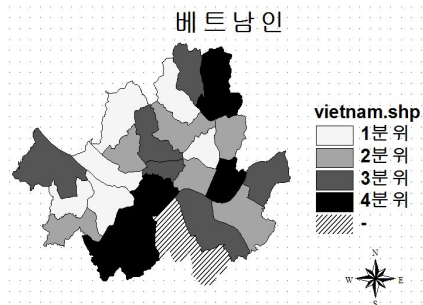
〈그림 2〉 중국인의 분리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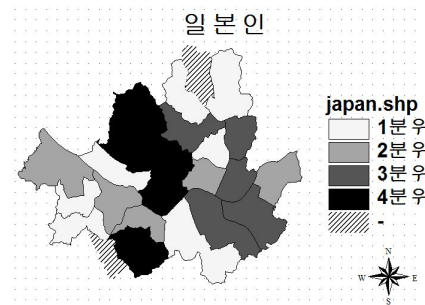
〈그림 3〉 미국인의 분리정도



〈그림 4〉 대만인의 분리정도



〈그림 5〉 베트남인의 분리정도



〈그림 6〉 일본인의 분리정도

주 1: 위의 그림에서 빗금 음영처리된 부분은 외국인 거주자 수가 100인 이하인 구로서, 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외된 곳임.

주 2: 베트남을 제외한 5개 국가들의 서울시 전체의 평균적 분리 정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로, 국적 간 상대적 분포를 고려하기보다 국적별 4분위 분포를 해당 국적 외국인의 구별 편차를 표현하였음.

구로서 본 연구에서 포함한 여섯 국적의 외국인들
이 구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외국인의 주거지 분리는 부정적 기능과 긍정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거주지 분리의 부정

적 측면은 고립을 초래하여 상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주류집단과의 접촉기회를 줄임으로써 사회적 동화를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반면에 분리된 거주지의 긍정적 측면은 동질화된 공동체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속에서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Ha and Jun, 2011), 주류사회로 나가기 전 단계의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의 주거지 분리현상과 이러한 분리가 갖는 역할에 대한 연구는 서구 선진국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간의 분리가 갖는 경제·사회·문화적 함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 2010년 현재 전체인구의 약 1.9%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외국인 인구는 내국인들과는 다른 공간적 분포패턴을 보이면서 성장해 왔다. 외국인들의 주거지는 공간적으로 분리·집중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패턴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왔다.

최근에 발표된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패턴에 관한 연구나 주거지 분리 정도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무관심과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던 외국인 주거지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공간적 분포패턴을 보여주는 데 그치거나, 너무 큰 공간적 단위를 분석에 사용하여 주거지 분리패턴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이해하게 하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의 국적별·체류자격별 분포를 구별로 살펴보는 동시에, 주거지 분리패턴을 읍면동 단위로 분석하여 구별 분리지표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구(區)내 전체 외국인 거주자 중 특정국적의 외국인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가 국적별로 각기 다른 특성이 있음을 보였다. 특정국적 외국인의 상대적 분포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 분석 결과, 한국계 중국인의 상대적 비율은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등 서울의 서남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에서는 미국인과 일본인의 상대적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구 단위에서 나타난 이러한 차이점이 동 단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분포의 상이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외국인의 국적별 증가추세에 맞추어 분리 및 밀집양상이 심화될 곳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특히 서울의 서남부 지역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의 57%(약 96,000인)가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집중도가 더욱 증가할 것임을 감안한다면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환경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관심과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지금까지 외국인 공간분포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국적과 체류목적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법무부나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통계가 국적별, 체류자격별 수로 별도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외국인의 국적과 체류자격에는 매우 긴밀한 상관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계 중국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서울의 서남부지역의 경우에는 단순 비전문인력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인과 일본인의 상대적 비중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전문직 및 유학 관련 체류자격의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

났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대만인, 미국인, 일본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의 변화나 국내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 주거의 공간적 분포도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분화나 교육기회의 차별화가 이주민 국적과 맞물려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이 역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셋째로, 실증분석 결과 서울시 내 외국인의 주거지 분리정도가 0.5 이상인 곳이 많이 있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Bay Area)에서의 흑인 주거지 분리가 0.33~0.56 정도임을 감안한다면(Lopez, 2001) 서울시 내 주거지 분리정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가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분리로 확장될 소지가 있는 만큼 분리정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국적별로 주거지 분리 패턴에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서울시 내에서 국적별 거주지 분리정도의 차이는 체류목적뿐만 아니라 국민성 및 해당 국민의 문화와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분리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읍면동 단위의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 패턴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리지표는 상대적 편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구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또한 특정 외국인이 서울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증한 분리지표 값은 보다 세부적 행정단위에서 외국인 주거패턴의 분리 및 집산화 정도를 가늠하게 하고,

이러한 분리가 체류목적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실증한 데 의의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왜 이러한 주거지분리가 발생하게 되었는가의 규명도 필요하다. 이론논의 부분에서 소개된 미국 등 서구 국가에서 나타나는 '조정', '지역지위 강등', '특정경제지역 지정' 등의 차별적, 배타적 행위와 관행에 의해 한국에도 주거지 분리가 나타나는가를 관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주택구입에 필요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차별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특정 커뮤니티나 특정 지역에 외국인의 자유로운 거주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밀집지역 형성의 원인' 및 '분리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같은 맥락적으로 심화된 연구를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경조, 2002, "서울시 외국인 거주에 관한 공간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훈·정소양, 2010,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23(1): 69~100.
- 박윤환, 2010, "수도권 지역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48(4): 429~453.
- 법무부, 2010, 『2009 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서울시, 2010, 『2009 서울통계』, 서울시.
- 신인철, 2007,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지 분리: 경기도 및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연구학회 2007년도 후기학술대회 논문집』, 37~62.
- 정수열, 2008, "인종 민족별 거주지 분화이론에 대한 고찰과 평가: 미국 시카고 아시아인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3(4): 511~525.
- 최은영, 2003, "거주지 분리 연구의 비공간적 전통을 넘어: 공간지수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47: 23~35.

- Allen, J. and Turner, E., 1996, "Spatial Patterns of Immigrant Assimilation", *The Professional Geographer*, 28(2): 140~155.
- Bayer, P., Ross, S. L., and Topa, G., 2006, *Place of Work and Place of Residence: Informal Hiring Networks and Labor Market Outcomes*, Working Paper, No. 11019, NBER.
- Duncan, O. D. and Duncan, B., 1955, "A Methodological Analysis of Segregation Index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2): 210~217.
- Fortuijn, J. D., Musterd, S., and Ostendorf, W., 1998,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thnic Segregation: Impacts on Urban Areas", *Urban Studies*, 35(3): 367~370.
- Galster, G. C., 1990, "Racial Steering by Real Estate Agents: Mechanisms and Motives", *Review of Black Political Economy*, 19(1): 39~63.
- Gordon, M.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 Seong-Kyu and Jun, Myung-Jin, 2011, "Assimilation and Social Capital of Mixed Ethnic Neighborhood in South Korea: a Case Study of Wongok Community", Paper presented at the 23rd ENHR Conference, July 22~23, 2011, Toulouse, France.
- Krivo, L. J., 1995, "Immigrant Characteristics and Hispanic-Anglo Housing Inequality", *Demography*, 32(4): 599~615.
- Logan, J. R. and Molotch, H. L., 1987, *Urban Fortun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opez, A., 2001, "Racial/ethnic Diversity and Residential Segregation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Center for Comparative Studies in Race and Ethnic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ssey, D. S., 1985,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and Empirical Review",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69(3): 315~350.
- Massey, D. S. and Denton, N. A., 1988, "The Dimens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Social Forces*, 67(2): 281~315.
- Portes, A., 1995, *Children of immigrants: Segmented assimilation and its determinants*, New York: Russel Sage.
- White, M. J., 1986, "Segregation and Diversity Measures in Population distribution", *Population index*, 52(2): 198~221.
- Zorlu, A. and Mulder, C. H., 2010, "Location Choices of Migrant Nest-leavers: Spatial Assimilation or Continued Segregation?",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5(2): 109~120.

원 고 접 수 일 : 2011년 6월 20일
1차심사완료일 : 2011년 8월 10일
2차심사완료일 : 2011년 9월 6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1년 9월 22일